학생운동가들의 노동운동 참여 양상과 영향

1970년대를 중심으로

유경순
역사학연구소

〈논문요약〉

1960년대 말 학생운동에 변화가 나타났다. 학생운동가들이 노동현장 투신을 시도하거나 이념서클을 형성한 것이었다. 이런 움직임은 전태일 분신사건 이후 더욱 활발해졌다. 그 결과 1970년대 후반기에 학생운동에서는 노동현장론이 등장했고, 직접 노동운동에 참여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들은 사회주의, 반독재운동, 민중주의 등의 의식이 혼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노동현장에 투신한 이들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기술습득을 한 뒤 1970년대 후반기에 취업을 했기에 민주노조운동에 영향을 행사하지 못했고, 한국노총과 종교단체의 실무자로 활동한 이들은 개인적으로 민주노조 지원활동을 벌였을 뿐이다. 유일하게 크리스천 아카데미의 활동가들이 노동교육을 매개로 노조간부들의 정치의식화와 새로운 노조운동의 주체형성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1970년대 학생운동세력의 변화는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980년대 학생운동세력의 노학연대 활동과 집단적인 노동현장 투신의 바탕을 이루었다.

■ 주요어: 사회주의, 민중주의, 반독재운동, 노동현장투신, 학생운동

1. 서론

학생운동가들이 노동운동에 참여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는데, 노동현장 외부에서 노동운동에 참여하는 것과 노동현장에 투신하는 방식이었다.[1] 대학생들은 1910년 마산에서 시작된 노동야학을 통해 처음으로 노동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1920년대에는 사회주의 운동의 등장으로 노동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특히 운동가들이 노동현장에 직접 투신해서 활동한 경우는 1930년대 혁명적 노동조합 운동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의 노동현장 투신은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단절됐다. 이후 학생운동가들의 노동현장 투신은 보통 1970년 전태일 분신사건 전후에 개별적인 양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 시기 학생운동가의 노동현장 투신은 극소수였고 장기적 전망 속에 이루어졌다.

1) 노동현장 외부에서의 '참여'란 학생운동가라는 운동의 영역을 변화시키는 수평적인 변화로 노동운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현장 투신'이란 사회 존재로서는 중산층이자 준(準)지식인인 학생운동가들이 자신의 사회적 존재를 벗어나 생산직 노동자로 존재를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존재이전' 또는 '투신'이란, 학생운동을 하기까지의 성장과정과 존재에서 형성된 중산층 문화를 운동 과정에서 획득한 이념에 근거해서 부정하고, 이념에 따라 노동자로 존재를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본 글에서는 한국현대사에서 학생운동가들의 노동현장 투신이 시작된 1970년대 학생운동의 노동문제 인식과 노동운동참여, 특히 노동현장 투신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기존의 학생운동 연구로는 학생운동의 전개과정이나 이념논쟁과 조직분화의 관점에서 통사적으로 접근한 개설서들이 있다(이재오 1987; 강신철 1988; 편집부 1988). 이 글들은 운동의 구체적인 전개과정을 파악하는 데는 의미가 있으나, 학생운동의 이념과 실천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데 한계가 있다. 학생운동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1970년대 관련해서 긴급조치 시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을 뿐(조희연 1995), 주로 1980년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학생운동사와는 별도로 지식인과 노동운동의 관계에 대한 김낙중의 연구(1985)는 1970년대 지식인의 노동운동 참여, 특히 종교기관과 노동문제연구소 등의 활동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이 글은 1970년대 지식인들의 노동운동 개입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글이지만 그 내용이 개괄적이며, 더욱이 학생들의 노동현장 투신에 대한 것은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노동운동사 연구에서 1970년대의 경우는 여성노동자들의 노동문화, 생활, 노동운동 등을 포괄하여 전체적인 상을 담론분석방식으로 접근한 연구(김원 2002), 개별 민주노조나 지원 단체에 대한 연구(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5)도 진행되어, 이 시기 노동자와 노동운동의 상황을 다각도로 접근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들 역시 당시 노동운동의 일 주체로 참여했던 학생운동 출신자들의 의식과 활동 상황에 대한 접근은 거의 진행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역사는 노동운동사에서도 잊혀졌다.

그나마 기존 연구에서는 학생운동가들의 노동현장 투신에 대해 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시기 정도를 간단히 언급할 뿐이다. 그 내용은 학생운동가들이 전태일 분신사건의 영향으로 노동문제에 관심을 갖고 노동현장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1970년 전태일 분신사건 이후 민중·노동자의 현실에 관심을 갖다가 1970년대 후반기 학생운동에 '현장론'이 대두되면서 일반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조희연 1988, 129). 이와 달리 '현장론'조차도 서울대 이념서클인 한국사회문제연구회와 한국문학연구회의 대립으로 전개되었다고 그 범주를 제한하기도 했다(편집부 1988, 13).

그러나 이 연구들은 1970년 전태일 분신사건이 어떻게 학생운동가들의 노동현장 투신으로 연결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또 1970년대 학생운동가들이 노동운동 참여에 대한 이유와 그 과정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는 1970년대 학생들의 사회인식 및 실천, 그리고 사회운동과의 연계성에 대한 연구가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운동가들의 노동현장 투신은 1960년대 후반기부터 등장했으며, 또 이 시기에 학생운동이 노동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본다. 이러한 움직임이 있었기에, 전태일 분신사건을 계기로 학생운동가들은 노동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더불어 노동현장 투신을 감행하게 되었다고 본다. 이에 대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운동가들이 왜 노동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노동운동에 참여하였는가를 규명하는 데 있다. 둘째, 1970년대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의 관계를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즉 1970년대 민주노조운동이 학생운동의 지향과 실천에 어떤 영향을 주었으며, 반대로 1970년대 학생운동가들의 노동운동 참여가 당시 노동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규명하려 한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학생운동가들의 노동운동의 참여방식과 그

활동에 대해, 그동안 간과되었던 노동운동의 일 주체의 형성과정에 착목하고자 한다. 주체형성의 관점에서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의 관계, 즉 두 운동의 상호작용의 과정에 대해 접근하고자 한다. 기존 운동사 연구는 학생운동, 노동운동 등 각 부문별 운동을 중심으로 한 접근에 머물렀다. 그러나 1970년대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은 직·간접적으로 상호작용을 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노동운동의 일 주체 형성과정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이 어떻게 상호작용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위의 과제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당시 운동 주체들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 이는 문헌자료로는 해명할 수 없다. 따라서 구술사 방법을 주로 활용하고자 한다. 구술사의 다양한 의미와 가능성 중에서 본고에서는 문헌자료의 한계를 넘어서 해명되지 못한 불분명한 사실관계를 밝혀낼 수 있다는 점에 착목한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구술사를 통해 당시 학생운동가들의 노동운동 참여 이유와 참여과정, 그리고 활동 내용 등을 복원하고자 한다.

본 원고에서 사용하는 구술자료 중에 김낙중, 김금수(57학번), 이원보(66학번), 김승호(68학번), 이목희(71학번) 등은 민주화기념사업회의 자료를 활용하였고, 1970년대 후반 학번인 김진국(77학번), 허명구(77학번) 등은 정치조직운동 관련해서 본 연구자가 개인적으로 구술채록 작업을 진행한 것이다. 특히 〈표 1〉의 주요 구술채록자들은 본 연구자가 2009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인사구술작업 프로젝트로 수행한 것을 활용하였다. 주요 구술자의 1970년대 노동운동 관련 활동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표 1〉 주요 구술채록자와 1970년대 주요 활동내용

구술자	학번	활동내용	구술 일시
김정강	59	무명당(1966~1980). 안양 전자공장-롯데제과-삼립식빵(1967~1979)	2009-07-02
신금호	65	중소기업기술진흥센터 용접기술습득(1968). 봉신주물제작소 등 소공장 전전(1969~1970). 흥국탄광 취업(1971). 대한전선 노조 기획연구실장(1976~1982)	2009-07-11
김세균	66	청계피복노동교실(1975). 크리스천 아카데미 간사(1977~1979)	2009-12-09
정윤광	67	인천과 구로동 화성보일러 제작소 입사(1977). 부산파이프 입사(1979~1980). 서울지하철 입사(1984). 서울지하철 위원장(1988)	2009-07-19
김영준	68	현대중공업 직업훈련소(1975).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입사(1976~1977)	2009-11-19
황인범	69	보일러 기술 습득. 병점 남일전지 입사(1979). 대영상사 입사(1980). 대동화학 입사, 노조대의원. 동부노동문제상담소, 서울노동조합운동연합 위원장	2009-11-01
김문수	70	청계천 또또사 취업(1973). 보일러 기술습득. 벽제 제지공장-한국스위밍센터 입사(1974). 한일도루코 입사-무명당 참여-노조분회장(1975~1980). 서울노동운동연합(1985)	2009-06-17
이태복	70	노동현장 경험과 조사(1975~1977). 광민사(1977~). 전민노련 결성(1980~1981)	2009-11-23
오성숙	71	부평고미전자 입사(1976~1977)	2009-11-18
이학영	71	엠네스티기술교육(1976). 진일실업(1977). 신설동학원 선반기술(1978). 남산화학입사(1978). 유압기계(1979)	2009-12-03
이동섭	72	구로공단취업(1978). 강원도탄광 광부(1984). 부광실업택시 기사(1984). 동양콜택시(1985).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간부(1986~1991)	2009-11-30
최봉영	73	택시회사 운전사(1982). 동광운수-노조 부위원장(1984~1985). 동아건설-노조기획실장, 사무국장(1986~1989)	2009-11-13
최규엽	73	현대건설-대우중공업직업훈련원(1979). 대우중공업(1980). 잉꼬법랑노조결성(1981). 동일제강(1984). 서울지역남부노동자연합(1985~1987)	2009-09-04

2. 학생운동의 초기적 노동문제 인식과 전태일 분신사건

1) 1960년대 학생·지식인의 노동문제 인식

일제 강점기에 사회주의를 지향하던 학생·지식인들의 노동현장 투신은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단절되었다. 이후 1960년대 학생운동은 1964~1965년의 한일회담반대운동, 1967년의 6.8부정선거 규탄데모, 1969년의 3선 개헌 반대운동 등 주로 정치문제 중심으로 활동을 벌였다. 또 학생운동은 소박한 민족주의 정서와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조직 면에서 이념서클은 초보적 수준에 머물렀고, 주로 학생회를 중심으로 운동이 전개되었다. 그 때문에 학생운동은 민주주의와 민족주의라는 대의에 어긋나는 일들을 반대한다는 성격이 두드러졌고, 정치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간헐적으로 집회와 시위를 반복하는 이슈 중심의 투쟁을 벌였다(문용식 1994, 251). 이런 학생운동의 분위기와 달리 1960년대 중반부터 노동문제와 노동운동에 관심을 가진 소수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다음의 세 가지 흐름이 있었다.

첫째, 해방 전후 사회주의자들의 활동이 구전(口傳)으로 남아 영향을 주는 상태에서, 4.19혁명, 6.3항쟁 등의 패배로 학생운동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모색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서울대 김정강(59학번)처럼 사회변혁을 지향하며 노동현장에 직접 들어간 경우가 있었다.[2)]

1960년대 처음으로 노동현장에 들어간 김정강의 경우 자신이 정리

---

2) 김정강의 이념형성에는 구전으로 전해들은 일제 시대 사회주의자들의 활동, 정치학 관련 수업에서 간접적으로 맑스주의를 접하면서 영어, 일본어를 공부하여 『공산주의 비판』, 『공산당 선언』, 『반듀링론』 등의 원서를 탐독한 것, 마지막으로 4.19혁명에 참여하면서 혁신계 운동과의 교류과정에서 영향 등이었다(김정강 구술).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 한국사회에 대한 판단에 따른 행동이었다. 그는 불꽃회 사건[3]으로 1965년 감옥에서 생활하면서 독재정권을 학생운동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으며 광범위한 대중운동의 발전된 힘으로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는 대중운동의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계급은 노동자와 농민이라는 전통적인 계급론과 혁명론을 수용하였다(김정강 구술).

1966년 8월 석방된 김정강은 불꽃회 구성원을 중심으로 '무명당'을 조직하였다. 그는 당시 독재체제에서 전위당 건설은 바로 탄압으로 와해되기에 당을 건설할 필요가 없으며, 전위당이 대중운동을 지휘해야 할 현실적 필요가 있을 때 건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 때문에 새로운 조직운동 방식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무명당'을 결성했는데, 그 활동방식은 '불문불기(不文不記), 무형무명(無形無名)'을 원칙으로 일대일(一對一) 관계의 점조직 방식이었다. 그는 당원들은 노동자, 농민, 지식층, 중소기업의 자본가들 속에서 '소조'를 형성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그는 노동현장에 직접 진입할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우리는 인텔리기 때문에 과학적 이론을 장악을 하고 있다. … 펜을 무기로 해서 중간단체에 들어가 … 우리의 이론을 펼치고 동조하는 노동자들을 장악하자"며 단체참여론을 주장하는 이들과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김정강 구술). 이런 논의 결과 1966년 말에는 무명당 관련자 중 김정강과 조직 관리를 담당했던 임무현 등이 노동현장으로 들어갔고, 1970년대 후반기 장경옥, 김문수, 노병직 등이 합류했다.

---

3) 불꽃회 사건은 1964년 7월 6일 정부가 도예종과 김정강을 국가보안법 위반 및 내란 소요 등의 혐의로 수배하면서 비롯됐다. 이 사건의 계기는 김정강이 조직구상을 메모한 노트가 경찰에 입수된 것이었다. 불꽃회는 김정강 등 5~6명이 만든 마르크스주의 연구서클이었다. 이들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대구, 부산, 광주 등에 비슷한 조직을 준비하고 있었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2006, 130).

김정강은 1966년 말부터 수도배관 품팔이로 노동을 익히기 시작했다. 그 뒤 모집공고를 보고 안양의 전자공장에 김수복이라는 가명을 사용해서 입사했다. 그는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노동자 친목회를 만들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신분이 드러날 조짐이 보이자 회사를 나왔다. 이후 1년 정도 직장생활을 하다가 다시 롯데제과를 다니면서 기술을 배워 보일러 기능사 자격증을 습득하고 회사를 나와 새로운 사업장 진출을 시도했다(김정강 구술).

한편 김정강은 노동현장에 들어가 있던 무명당원들의 경험을 모아서 공장에 침투하는 방법, 노조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회사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 갈 것인가 등의 공장 활동 지침서인 「공장 공작규정」을 정리했다. 그 뒤 그는 1979년 삼립식빵 공장 전기주임으로 입사해 일하다가 1980년 '과학적 사회주의서클 사건'으로 구속되었고 이후 운동을 정리했다.[4)]

김정강보다 조금 늦게 노동현장 진출을 시도한 이는 신금호였다. 그는 1966년 서울대 정치학과에 입학한 뒤 민족비교연구회에 참여했다. 군복무 후 1968년 복학한 그는 통일혁명당 관련자들에게 레닌, 모택동의 저작물들에 대해 듣고 도서관에서 『실천론·모순론』, 『신민주주의론』 등의 책을 찾아 탐독했다.[5)] 그는 이런 학습과정에서 '사회과학적 세계관(맑

---

4) 이 조직의 활동에 대해 정보당국은 다음과 같이 파악하고 있었다. "'과학적 사회주의연맹'은 60년대 중반 이후 서울대 좌익이념서클 출신들 중에서, 노동현장에 침투하여 장기간 노동현장 활동을 하여온 자들이 주축이 되어 구성되었다. 이들은 1980년대 당시 서울대 학생지도부를 주관하고 있던, 소위 '무림'의 선배 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사건 관련자로 50여 명이 관계당국에 검거된 바 있고, 1980년대 들어 북한과 연계되지 않은, 자생적 좌익집단으로서 최초로 적발된 사건이었다"(경찰청 1992, 103).

5) 통일혁명당은 1968년 8월 24일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통일혁명당 간첩단 사건'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규모 면에서는 1968년 서울, 전남에서 1970년대에 경북지역까지 확대되었다. 활동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스주의)'을 갖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는 학습 이외에도 농촌참여, 광산참여 등을 통한 사회참여 활동을 했고, 그 때문에 "노동현장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미 형성된 세계관 속에서 자연스런 결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신금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노동문제에 접근해나갈 때 내 후배나 김근태나 많은 사람들이 … 천편일률적으로 '전태일로부터 … 발상이 전환됐다'고 할 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전태일 건도 … 전태일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세계관이 있었던 거라. … 통혁당 사람들 하고도, 예를 들면 '박헌영은 벽돌공장에서 일했다'는 이야기나 … 또 문리대도 방학 때 농촌으로 가거나 광산 막장까지 들어가 보거나. 그것의 연관으로 이데올로기적 시각이 있어서, 그것을 공장 속에서 해보겠다는 생각으로….'(신금호 구술)

그 뒤 신금호는 몇몇 학생운동가들과 같이 노동현장 투신에 대해 고민했으나 결국 혼자 들어갔다. 그는 노동현장에 들어가기 위해 중소기업기술진흥센터를 다니며 용접기술을 배웠다. 그는 소규모의 공장을 전전하다가 보다 확실한 노동경험을 하기 위해 삼척시 도계읍에 있는 흥국탄광에 들어갔다. 5개월여 일하는 동안 서울에서 친구에게 빌려준 책이 당국에 걸려 반공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그는 조사 경력 때문에 현장에 들어가는 데는 저해요인이 된다고 판단해

은 사건 이후에도 지속되어 1969년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했고 1970년 2월에는 당 창건을 선포하였다(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연구반 1991, 182-184). 특히 그 구성 면에서는 통혁당 서울시위원회는 서울대학교 문리대, 상과대 출신자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편집부 편 1988, 75). 이처럼 통혁당에 가담한 문리대 학생들은 주위의 대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된다. 신금호만이 아니라 통혁당에 가담한 박성준의 영향으로 서경석은 마르크스주의를 학습하면서 산업사회연구회를 결성해 노동현장을 지향하는 서클 흐름을 만들기도 했다.

서, 1976년부터 장명국의 소개로 대한전선노동조합의 기획연구실장으로 활동하였다(신금호 구술).

둘째, 경제개발계획 이후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파생되는 노동문제 등을 연구하기 위한 연구소와 이념서클이 생기기 시작했다. 1960년대 전반기까지 지식인들이나 사회운동세력은 노동문제에 관심이 적었다. 이들은 주로 농업문제나 농민운동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나 일부 지식인들이 박정희 정권에 의한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으로 산업화가 진전되고 노동자계급이 형성되어 가자 노동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들은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서강대학교 산업문제연구소를 만들어 노동문제를 연구하고 노동자교육을 시도했다(김낙중 1985, 403-404). 특히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이하 '노문연')는 1965년 12월 김윤환 교수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노동문제 연구기관이자 교육기관이었다. 김윤환 교수는 1960년대 전반기 산업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파생될 노동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자 권익향상을 위해서 '노동자들의 자각'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였다. 그는 1964년 노동경제연구소를 만들었다가 1965년에는 고려대 부설 노동문제연구소로 전환시켰다. 노문연의 소장은 김윤환 교수였고, 총 간사는 김낙중, 간사로는 노중선, 박종렬 등이 참여했다(김낙중 구술).

노문연이 처음 추진한 일은 '노동문제 세미나'였다. 이 세미나의 특징은 노동계, 기업, 정부 등 노동관련 당사자들이 직접 발표를 하게 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1966년에는 노동청장 이승택이 참여하여 '한국 노동행정의 방향'을 발표하거나, 한기수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노동운동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고, 또 경영자협의회의 윤능선 사무총장을 통해 기업주 측의 입장을 발표했다. 1967년에는 한국경제 세미나를 진행했는데, 특히 2차 5개년계획 등에 대한 것으로서 발표 때는 경제기획원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종합기획 과장을 불러 그 내용을 듣기도 했다(김낙중 구술).

이어 낮에 근무하는 노동조합 간부들을 위해 저녁시간에 '수요연구발표회'를 만들어 당시 자동차노조 본부에서 노동문제를 둘러싼 여러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 형식으로 진행했다. 이 발표회에는 한국노총 간부, 산별노조 간부, 공기업 노조의 간부들이 참여했다. 이 발표회가 발전되어 만들어진 것인 '노동교육과정'이었다. 노동교육과정은 1967년부터 봄과 가을에 매년 2회씩 진행해서 1970년까지 13기가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노동운동사, 노동조합론, 노무관리론 등이었고 강사는 대학교수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노동교육과정'은 교육도 중요했지만 교육 이후 뒤풀이 자리를 활용해서 노조간부들과 간사들이 실제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여러 논의를 진행하면서 친목을 다지기도 했다. 이어 노문연은 회지인 『노동문제』를 발간해 각 노동조합에 배포했다. 『노동문제』는 7집까지 나왔는데, 마지막 7집에 전태일 분신사건과 관련한 사진을 넣고 서울대학생들의 추모사 등을 기사로 담자 정보기관에서 배포를 금지시켰다(김낙중 구술).

또 노문연은 회지인 『노동문제논총』을 통해 노동경제학, 노동법, 특정 노동문제를 다루는 등 노동문제관련 논문을 모아 출간하였다. 그 밖에 외부용역을 받아 「우리나라 직업훈련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임금물가 노동성, 생산성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노동시간 실태에 관한 연구」 등의 연구사업도 진행했다(노중선 구술).

특히 1970년대 들어 민주노조들이 결성되면서 노조간부들이 노동교육과정에 참여하였고, 유신체제 등장 이후 탄압받는 민주노조들이 투쟁을 벌이면 지원활동을 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노동문제를 중심으로 한 연구, 조사, 교육활동을 벌이던 노문연은 1973년 'NH사건'으로 간사인 김낙중, 노중선 등이 구속되고 한맥회원들이 다수 구속되면서 활동이 정

체되었다.[6)]

이러한 활동과정에서 노문연은 고려대 이념서클인 한맥회의 활동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당시 고려대에는 이상수, 조성준(67학번)이 만든 '민맥' 서클과 이원보와 천영세(66학번)가 만든 '한모임'이 활동하고 있었다. 1969년에 이 두 서클이 통합해 '한맥회'를 결성했다. 한맥회는 지도교수인 김윤환 교수를 통해 구성원들이 노문연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간사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노동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이원보 구술). 그 영향으로 학생운동가들의 의식에 변화가 생겼다. 이에 대해 김영곤은 "4.19 이후 민족주의적 경향과 박정희가 좌익 출신이라 그에 약간 수긍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거와 다르게 반(反)박정희, 진보적 민족주의, 친 노동, 농민에 대한 연민, 이런 정서"가 나타났다고 한다.[7)]

셋째, 학생운동 세력은 반독재투쟁에서 계속적인 좌절을 맛보았고 3선 개헌 반대투쟁의 실패 이후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 노동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서울대의 경우를 보면, 3선 개헌 반대운동이 좌절되자 소수의 선진적 학생운동가들은 학생들의 정치운동에 한계를 절감하였다. 이들은 독재체제의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경제문제 등에도 관심을 갖고, 운동의 주체도 학생운동을 비롯해 노동운동, 농민운동이 어우러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장기적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비록 "사회변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민

---

6) 1973년 5월 24일 중앙정보부는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김낙중이 중심이 된 'NH회의 학원침투 간첩단 사건'을 발표하고, 이들을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위반·내란 선동·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 사건은 한맥회의 성원들이 『민우』라는 유인물을 제작하여 공단주변과 고려대에 배포하자 중앙정보부가 그 주모자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노동문제연구소의 김낙중 등 2명과 학생운동가 8명 등을 엮어 '학원 침투 간첩단'을 조작한 것이었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6, 242).

7) 김영곤 인터뷰(http://blog.jinbo.net/comworld/494).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화와 사회변혁을 포괄적 구조적으로 사고하는 경향이 대두"하였다(김승호 구술).[8]

이러한 학생운동의 반성과 일부 방향전환의 움직임이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난 것은 이념서클의 등장이었다. 예컨대 서울대 법대 조영래가 사회법학회를 만들었고, 1969년에는 후진국사회연구회와 서울공대의 산업사회연구회가 만들어졌고, 그 밖에도 한국사회연구회(1968.3), 이론경제학회(1969.3), 문우회(1970.6), 낙산사회과학연구회, 도산사회과학연구회, 복문회, 경제법학회, 농촌법학회 등 여러 서클들이 결성되어 활동하기 시작했다. 특히 산업사회연구회는 서경석(서울대 66학번)에 의해 1969년에 만들어진 이념서클로서 초기부터 선도적으로 공장 활동을 시도하는 등 노동현장 지향성을 강하게 갖고 있었다.[9] 이 서클은 1970년대 내내 유지되면서 지속적으로 학생운동가들이 노동현장에 참여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이처럼 이념서클들은 학습을 하는 동시에 민중의 삶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광산촌이나 빈민촌 실태조사, 농촌활동, 빈민촌 활동 등의 실천을 병행하였다. 이런 움직임은 이념 서클의 공통적인 활동으로 보였다.

한편 대학 내부의 움직임은 대학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

---

8) 1960년대 이후 6.3사태와 3선 개헌을 경험하면서 각성되기 시작한 선진적 학생운동가들은 운동주체로서 민중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를 실천에 옮기기 시작한 선진인자들의 일부는 1970년대 초 도시빈민과 노동자들의 생존권보장 요구투쟁을 지원하는 민중지원투쟁에 헌신하게 되었다(이해찬 1984, 188).

9) 서경석은 1966년 서울공대에 입학해서 박세일을 통해 이념서적을 보았고, 1967년에는 본격적인 사회주의 공부를 하였다. 그는 경제복지회의 회장 박성준(통혁당)을 만나서 비밀지도를 받기도 하였다. 그는 1969년에 산업사회연구회를 만들었다. 1970년 전태일 분신사건이 일어나자 그는 새문안교회에서 '참여와 호소의 금식기도회'라는 추모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그는 민청학련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1975년 석방된 뒤에는 한국기독학생총연맹의 간사로 활동했다(신동호 2007, 39-41).

행되기도 하였다. 한 축으로는 서울대 법대의 장기표를 중심으로 대학 합동수련회 등을 개최하여 학생운동의 활동방식에 대한 반성과 방향을 둘러싼 논의를 1년 정도 진행하였다. 당시 논쟁 내용에 대해 김승호는 "'반(反)박정희로 할 것이냐, 아니면 구조 변혁을 목표로 해서 사회운동을 할 것이냐' 가지고 토론을 했어요. … 그때 정치적인 데만 집중하는 운동은 … 단기적으로 맞지만, 장기적으로는 올바르지 못하다는 거고, 실천적으로도 광산에 가보고, 빈민촌 조사도 해야 한다는 논의 … "가 있었다고 기억했다(김승호 구술).

또 고려대 총학생회와 이념서클인 한맥회가 주관하여 경북대 정진회,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의 여러 학생운동가들이 참여하는 토론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 토론회는 천영세 등의 66학번들이 시작한 것으로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다락원 등에 모여 당면한 학생운동의 문제나 연대활동과 연대투쟁을 둘러싼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1, 227).

이처럼 1960년대 말 1970년 초 독재체제가 강화되어 가고 이에 저항하던 학생운동은 이념서클을 중심으로 활동을 넓혀나가기 시작했다. 군사독재에 저항하면서 반독재민주화운동을 펴 나가는 한편, 새로운 이념과 방향 모색 속에서 민중에 대한 관심도 형성되어 갔다. 더욱이 1960년대 말 한국경제가 심각한 불황국면을 맞자 사회의 계급갈등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도 이념서클에 큰 영향을 주었다. 1963년~1968년 동안 평균 8~9%의 고도성장을 거듭해온 한국경제는 1969년부터 심각한 불황국면에 접어들었다. 경제위기는 실업자의 증가, 국민의 생활고로 이어졌다. 사회의 계급갈등이 심화되었는데, 1967년 광산노조의 광화문시위, 1968년 조선공사쟁의, 1969년 면방쟁의, 부두노조쟁의 등을 거치면서 점점 규모가 커졌다. 이와 같이 격화되던 노동자 투쟁은 1970년 1,656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으로 전년에 비해 무려 10배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밖에도 1970년 4월 와우아파트 붕괴사건, 1971년 8월의 광주대단지 사건, 과중한 세금에 분노한 영세소상인계층의 저항 등 민중들의 투쟁이 여러 부문에서 고양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 일어난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의 분신사건은 학생운동이 노동문제에 관심을 갖고 노동운동에 결합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2) 전태일 분신사건과 1970년대 학생운동의 노동문제 인식

(1) 1970년대 전반기 이념서클의 확산과 노동문제의 선전

1970년 11월 13일 일어난 전태일 분신사건은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한국 자본주의의 문제와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전략 구조의 모순을 폭로한 것이었다. 분신사건이 나자 서울대를 비롯해 고려대, 연세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외국어대 등에서 항의 농성, 단식 농성, 성명서 발표 등이 잇달았고, 대학 간에 연합하여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11월 말 학생들의 투쟁은 겨울방학을 맞으면서 중단되었고 교회에서도 전태일 관련 집회가 중단되었다(유경순 2011, 353-357).

학생운동은 1960년대 민족주의와 민주주의를 외치는 데 머물렀던 운동의 한계를 인식하고 변화를 모색하던 중에 일어난 전태일 분신사건에 큰 충격을 받았다(조영래 1983, 241-242). 이후 이들은 '민권수호'로 표현되는 민중에 대한 관심을 직접 행동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김승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1969년 투쟁 이후 사회운동에 대한 관심으로 전화되어 가던 과정에, 전태일 사건이 70년 11월에 있어요. 이쪽에서는 그런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다가가는 중이었는데 실제로 거기가 훨씬 더 치열하게 앞서서 분신으로 전태일이 갔으니까 충격이었죠. … 지식인들이 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거잖아요? 그런 것이 없었다면 오히려 충격이 덜 했을지도 몰라요."(김승호 구술)

학생운동의 민중에 대한 관심을 실천적 방향으로 연결시키는 데는 정부의 영향도 있었다. 정부는 1971년 10월 16일 위수령을 발동하여 서울대 등 7개 대학에 군 병력을 진주시키면서 학생운동의 해체작업에 나섰다. 학생운동가의 제적·입영·구속과 아울러 대학 내 서클 해체, 교내 간행물 폐간, 학생회 기능정지 등 탄압을 가했다. 이에 학생운동은 역량을 축적하는 데 힘을 기울이는 한편 공장 활동 등을 통해 노동문제에 대한 관심을 넓혀나갔다. 예를 들어 서울대 산업사회연구회는 처음부터 학생운동의 역할보다 노동현장에 참여하는 것에 더 의미를 두었다. 1970년 공장 활동에 참여했던 김석준은 그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6개월여 동안의 자체 학습과정을 거쳐 1970년 겨울방학이 시작됨과 동시에 우리는 노동현장에서 몸으로 체험하면서 한국사회의 문제를 배우고자 했다. … 주 중에는 인천과 구로동의 두 팀으로 나뉘어 활동하다가 주말에는 오류동부에 집결하여 본 합동으로 평가와 상호토론하기로 했다. … 공대팀 외에도 이화여대 POWER클럽 회원들이 도시산업선교 활동에 가담하여 주로 시내버스 여차장과 구로공단 여공 등으로 노동현장에 참여했다."(김석준 홈페이지)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부 학생운동 서클에서 이런 움직임을 둘러싸고 약간의 대립이 나타나기도 했다. 그 내용은 시위와 데모를 중심으로 활동할 것을 주장하는 쪽과 공장 활동이나 노동현장 참여를 강조하는 세력 간에 학생운동 방향을 둘러싼 것이었다. 산업사회연구회의 서경석과 윤조덕 등은 도시산업선교회와 협력관계를 갖고, 학생운동가들을 공장 활동이나 노동현장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했다. 이들에 의해 1971년 김문수, 이영훈, 이채원, 김재근은 구로공단에 노동체험을 하기 위해 공장에 취업했다(김문수 구술).

또 1972년 학생운동이 침체된 속에서 후진국사회연구회 등은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종교기관을 활용하였다. 이들은 유신권력이라도 종교기관은 탄압할 수 없다는 조건을 활용하여 문리대, 법대, 상대의 학습모임을 재건하였다. 또 이들은 교회를 통해 한국기독학생총연맹 산하에 만들어진 학생사회개발단과 관계를 가졌다.[10] 학생들은 학생사회개발단의 이름으로 빈민촌 조사활동, 공장활동 경험을 하였다. 학생들은 중화요식노조결성을 지원했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나병식 구술 2011, 8-13). 이처럼 당시 종교계는 전태일분신사건 이후 민중의 생활과 실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으며, 이런 움직임에 학생운동가들도 영향을 받아 민중에 대한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고려대의 한맥회 학생들도 광산체험, 노동현장 체험, 노동현장 조사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예로 노동문제연구소가 공식사업으로 노동현장 실태조사를 했는데, 대성모방, 구로공단 등의 실태조사에 학생들이 참여하기도 했다. 또 학생들은 흥국탄광에서 후생조합간부로

10) 학생사회개발단운동은 1969년 11월 대학 YMCA와 한국기독학생회(KSCM)가 한국기독학생총연맹(KSCF)으로 통합되면서 3년간의 프로그램을 설정했다(편집부 1989, 37).

일하고 있는 손정박을 통해 비밀스럽게 광산체험 활동을 하였다(함상근 구술).

이처럼 학생들은 사회민주화가 노동문제의 해결을 담보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며 문제의식을 넓혀나갔다. 이는 1971년 광주대단지 폭동이 발생하자 학생들의 진상조사활동 및 진상 공개, 한영섬유 김진수 피살사건에 대해서는 성명서 발표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11] 학생운동은 민중생존권 문제에 대한 지지와 연대활동을 넓혀 나가면서 민중 억압적인 정권의 성격을 인식해 갔고, 반독재투쟁의 필요성을 민중의 삶과 연계하여 이해하기 시작했다(이태복 1994, 265).

학생운동은 점차 노동자들의 투쟁이 증가하자 이에 대한 지원활동을 하면서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각종 성명서와 선언문을 통해 노동기본권의 부활을 빼놓지 않고 요구했다.[12] 특히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하 '민청학련')사건 관련 선전물에서는 직접적으로 '민중'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민청학련은 조직적인 반유신운동을 전개할 필요를 느낀 학생운동이 전국적 조직의 결성 및 전국적 동시궐기를 시도한 점에서 이전의 학생운동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이들은 각종 유인물에서 학생운동의 민중지향성을 공식화하고, 학생운동의 기본성격을 '민중적·민족적·민주적' 운동으로 규정함으로써 민중주의적 민족주의 지향을 향후 학생운동의 이념으로 제시했다(정윤광

---

11) 1971년 6월 25일 장례식에서 기독교학생연맹, 가톨릭학생연맹 등 9개 단체회원 200명이 "차라리 철폐하라, 허울 좋은 노동조건"이란 플래카드를 내걸고 시위했다(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84, 93).

12) 1973년 10월 2일 서울대 문리대 시위에서 배포된 선언문의 결의사항 중 두 번째 항목인 "대일 예속화를 즉각 중지하고 민족자립경제체제를 확립하여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라"에서 보이듯 이들은 경제문제와 동시에 민중생존권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민족 민주 민중선언』(일월서각 1984, 169).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구술).[13]

(2) 학생운동의 급진화와 현장론의 대두

1970년대 후반기 들어 학생운동은 유신정권의 더욱 심한 탄압 아래 놓였다. 1975년 4월 30일 베트남의 공산화를 기화로 연일 관제 반공궐기대회를 개최하던 정권은 급기야 5월 13일 긴급조치 9호를 선포하였다. 이 조치는 당시까지 모든 긴급조치의 종합판으로서 대학을 병영화하고 철저한 감시체제하에 두는 것이었다. 그 때문에 긴급조치 9호 이후 학교 당국과 경찰의 시위대응은 강경일변도로 급변하였다. 학생회가 해산되고 학도호국단이 조직됨으로써 공개적인 학생조직을 운동에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학내 감시망이 철저해지면서 1975년부터 1976년까지 대규모 시위를 도모하는 것은 어려웠다. 국민대의 시위 미수사건, 서울대·경희대 연합시위의 실패가 그 예일 것이다. 따라서 각 대학의 학생운동 세력은 주로 지하 이념서클을 통해 투쟁의 대열을 확대하려 했다.

서울대의 경우는 한국문화연구회, 국제경제학회, 농촌법학회, 이론경제학회 등 학회들이 전통적으로 단과대학에 기초해서 형성되었다. 그 밖에도 역사철학회, 후진국경제학회, 대학문화연구회, 사회과학연구소, 흥사단 아카데미, 경제법학회, 농촌법학회 등이 활동하였다. 이로써 사회과학서적을 학습하면서 학생들을 의식화하는 이념서클들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념서클의 활동이 자생력을 확보하고, 서클 간의 연계도 가능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

13) 민청학련의 선언문인 「민중·민족·민주선언」에서는 자신들의 궐기가 "학생과 민중과 민족의 의사를 대변하는 민중적, 민족적, 민주적 운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들은 "부패 특권 족벌의 치부를 위한 경제정책 시정"하고 "근로대중의 최저생활 보장", "반민족적 대외의존 경제를 청산하고 자립경제를 확립"할 것을 주장하였다(한승헌 편 1984, 236).

1977년에는 극에 달한 학원탄압 속에서도 연세대 2,000여 명의 시위(10.25), 2,500여 명이 참여한 서울대 시위(11.11) 등 반유신투쟁이 되살아나기 시작하였다. 1978년에 학생들의 반(反)유신투쟁은 반(反)독재투쟁의 차원에서 더욱 나아가 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와 결합하기 시작하였다. 이전부터 학생운동가들의 노동현장 투신이 전개되고 있었지만, 이 무렵부터 학생운동 내부에서도 노동자들의 권리를 직접 옹호하는 구호를 내세우게 된 것이다. 1978년 초 동일방직 노조에 대한 탄압이 알려지면서 학생운동은 "유신철폐·학원자유화와 함께 노동3권보장·노동운동탄압중지"를 요구하였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 2006, 333). 뒤이어 일어난 1979년 8월 11일 YH사건은 학생운동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14)]

한편 이 시기 학생운동은 이전에 자신들의 운동이 논리보다 행동만을 강조했고 이념적 토대가 약했다는 자기비판 위에 사회과학 이론에 대한 학습을 중요시하기 시작하였다. 사회과학 출판사들이 등장하여 현실을 분석한 책들을 발간하기 시작한 것도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사회과학 책들이 일반 학생들 사이에서도 확산되기 시작했다.

학생운동가들은 『저개발의 개발』(A.G. 프랭크, 새밭, 1980) 등의 종속이론, 『모택동』(스튜어트R. 슈람, 두레, 1979) 등의 모택동주의, 『대지의 저주받은 자들』(프란츠 파농, 광민사, 1979) 등의 제3세계 이론, 『자

---

14) 9월 3일에 강원대 학생 800여 명의 교내 시위가 일어났고, 같은 날 대구 지역에서는 계명대, 영남대, 경북대의 학생들이 '사회정의 구현을 위한 경북학생협의회'를 결성하여 YH사건의 진상규명과 노동3권 유보조항 철폐, YH여성노동자 김경숙의 죽음에 사죄할 것 등을 주장하였다(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소 1983, 1931-1932). 이후 9월 11일의 서울대 시위에서는 "외자-수출의 경제구조는 국내적으로 노동자·농민의 착취·수탈구조이며 대외적인 종속기구"라고 강한 비판을 했다. 9월 26일 이화여대의 「이화민주선언」에도 노동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소 1983, 382).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본주의 발전연구』(모리스 돕, 동녘, 1980) 등의 자본주의 구조와 계급이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1970년대 후반의 '민중'은 이전에 비해 좀 더 계급적인 의미를 함축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긴급조치 9호 이후 더욱 엄혹해진 정치적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 긴급조치 9호를 발동하면서 유신정권은 학생운동가들을 숱하게 제적, 구속, 투옥시켜 학교에서 추방함은 물론, 취업이나 진학 등을 불가능하게 하여 사회로부터 고립시키다시피 했다. 이 때문에 저항은 반독재운동에 일생을 거는 결의가 없이는 어려웠다. 따라서 학생운동가들은 대체로 직업적인 운동지향성을 띠게 되고 노동현장으로 투신하는 경향도 강화되었다(조희연 1995, 113-115).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1970년대 후반기 학생운동은 반유신투쟁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논쟁을 벌였다. 그 내용은 '현장준비론'과 '정치투쟁우위론'으로 대립되었다. '현장준비론'은 학생운동이 직접적인 정치투쟁을 지양하고 노동현장에 접근하는 훈련과 준비를 해서 졸업 후 노동현장에서 조직활동가가 되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장론은 1960년대 말 김정강 그룹 내부에서 논의되기 시작했고, 1970년 서울대 산업사회연구회의 현장지향적 흐름과 학생운동의 시위 중심의 논쟁이 일부 있었다. 이 시기까지 일부 서클 내에서 소극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논쟁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1970년대 후반 이후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정치투쟁우위론(학생선도투쟁론)은 적극적인 선도투쟁, 정치투쟁이야말로 학생운동 본연의 임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이선근 등이 이끌던 흥사단 아카데미 계열은 학생들의 선도적 민주투쟁을 강조하였다(박성현 1990, 240-242). 논쟁은 대중적이지 않았으나, 현실운동의 방향을 둘러싸고 학생운동이 전략 차원에서 현실을 변혁하는 사회운동이라는 새로운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현장론을 주장한 경우에도 노동현장에 투신한 이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대부분의 학생운동가들은 주로 노동자 투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여론화하는 역할을 하였고, 특히 다수가 야학교사로 참여하는 방식이었다. 그 때문에 학생운동이 노동자투쟁 상황을 알리거나 규탄대회 및 기도회에 참석하여 항의하는 방식이 생겨났고, 이것은 학생운동이 노동운동을 지원하는 당시의 독특한 형태로 자리 잡아갔다. 또 야학활동은 학생들이 자신의 존재를 유지한 채 노동자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거나 의식화할 수 있는 장이었다. 야학은 초기에는 검정고시야학의 성격이었으나 1970년대 후반 들어서면서 노동야학의 성격이 강화되어 갔다.[15)]

노동야학은 1976년경 청계천 주위에서 시작되어 서울의 빈민지역이나 공단주위인 성남, 성수, 구로동 등으로 점차 늘어났다. 이들 야학은 초기에 검정고시야학이나 생활야학에서 노동야학으로 변화된 경우가 있고, 처음부터 노동야학으로 만들어진 경우도 있었다.[16)]

대부분 노동야학의 수업은 국어, 영어, 한문, 수학, 신문사설, 국사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검정고시야학에서 하는 교과서 위주의 수

---

15) 검정고시야학은 1961년 정부 주도의 재건야학에서 출발하였는데,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이 야학은 검정고시 합격률의 저조 및 학비 문제 등의 한계가 드러나자, 1970년대 들어 좀 더 실제적인 생활을 통한 다양한 전인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야학이 등장했다. 생활야학은 참여자들의 일상생활을 돌아보게 하는 프로그램 등 그 폭이 다양한데, 대개 검정고시 야학과 노동야학의 중간 단계로 이해되는 등 개념이 정립되지 못했다. 노동야학은 노동자들이 노동현실의 문제를 인식하여 노동자 의식 및 사회의식을 갖게 하는, 노동자들의 의식화에 목적이 있었다(한완상·허병섭 1985, 163-168).

16) 1970년대 후반기부터 시작된 노동야학의 전체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다만 1983년 말 야학연합회 사건 관련해서 300여 명의 교사와 200여 명의 노동자가 연행된 것에서 당시 노동야학이 상당한 규모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6, 40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업방식을 탈피하기 위해 교재를 독자로 만들어 운영했다(황광우 2007, 47-50). 이 과정에 신림동, 봉천동 야학 등은 야학 간의 교류를 추진하기도 했고, 그 결과 여러 야학 학생들의 글을 모은 『비바람 속에 피어나는 꽃』(청년사, 1979)을 출간했다(허명구 구술). 또 구로동의 야학들은 당시 서통(주)의 여성노동자들을 모아 소모임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노동조합 결성을 지원했다. 이처럼 노동야학은 점자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움직임을 띠기도 했다(김진국 구술).

요컨대 1960년대 말에는 극히 일부의 학생운동가들만이 노동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다면 전태일 분신사건의 영향으로 1970년대 전반기에는 일부 이념서클들이 노동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공장활동을 시도했다. 이념서클에 기반을 둔 학생운동은 1970년대 후반기 들어 직업적 학생운동 집단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들은 노동자 투쟁이 활발해지는 상황과 맞물리면서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의 관계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학생운동은 노동문제에 대한 선전활동에서 나아가 노동야학운동으로 발전했다.

3. 노동현장 투신과 단체를 통한 노동운동

1) 노동현장 투신자들의 의식과 활동방식

(1) 학생운동의 한계 인식과 '민중 속으로'

학생운동가들은 1960년대 노동현장에 참여한 극소수를 제외하면 대

부분 1970년 전태일 분신사건 이후 노동운동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당시 학생운동에서 소수의 선진적 활동가들이었다. 이들이 노동운동에 참여한 이유는 학생운동 과정에서 형성된 '민중 속으로', '노동자와 함께 하는 삶' 등의 민중주의적 요소가 강했고, 거기에 사회주의에 대한 관심 등이 혼재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사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김문수는 학생운동 시기에 산업사회연구회를 통해 공장활동 경험을 하기도 했고 또 선배들의 소개로 청계피복 노조의 노동자 학습을 지원하기도 했다. 김문수는 초기에 현장지향적인 이념서클의 영향을 받았다. 그는 노동운동이 사회변화의 핵심이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노동현장 투신은 자신의 힘을 더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김문수 1986, 148). 그는 벽제 제지공장, 한국스위밍센터 등에서 노동을 하다가 1975년 2월 한일도루코에 보일러공으로 입사했다. 그곳에서 활동하던 중에 안병직 교수가 노동현장에 보일러공으로 취업해 있던 무명당의 임무현을 소개해주었다. 무명당은 조직관계를 철저한 일대일의 점조직 형식으로 유지했기 때문에 김문수는 임무현 만을 만났다. 이들은 만나서 현장활동 방식에 대해 논의하거나 정세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김문수 구술).

이처럼 대부분의 학생운동가들은 이념서클의 영향으로 노동운동에 참여하였다. 서울대 경제학과 68학번인 김승호는 한국사회연구회에 참여했다. 그는 모택동사상, 동학농민운동, 독립운동사 등을 학습하면서 지식인의 역할 등을 고민했고, 사회주의에 대한 관심도 갖기 시작했다(김승호 구술). 또 정윤광도 1971년 학생운동을 하면서 동시에 사회운동을 준비하기 위한 낙산사회과학연구회, 한국문화연구회, 두레모임 등을 통해 노동운동 관련 학습과 현장실태조사 등을 하면서 노동현장에 들어갈 결심을 했다. 황인범 역시 정윤광보다 1년 늦게 참여한 낙산사회과학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회를 통해 노동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황인범 구술). 이념서클의 분위기는 암묵적으로 사회주의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에 대해 정윤광은 다음과 같이 증언을 했다.

> "제가 70년 복학하고서 도서관에서 『공산당선언』도, 경제학도, 역사책도 보면서 … '사회주의를 지향할 거다.' 난 그냥 수용했던 것 같애 … 실제로 그 분위기들이 있었고 … '『자본론』 누가 몇 번 읽었다'고 하고, 서클 분위기는 사회주의 지향이 이상적인 거고. 또 '현장에 가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신금호는 공장에 가려고 한다.' … 그래서 그걸 상당히 존경하는 분위기예요."(정윤광 구술)

둘째, 일부의 학생운동가들은 이념서클을 통해 노동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던 학생운동가들에게 영향을 받아 노동현장에 투신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전남대 71학번인 이학영은 생활이 어려워 학생운동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주위의 강권으로 학생회장을 맡았고, 그 때문에 전남대 민청학련 관련자로 구속되었다. 그는 감옥에서 처음으로 사회과학 학습을 하면서 정윤광, 김영곤 등의 영향을 받아 노동운동과 사회변혁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학영은 당시 감옥 안에서 학습하며 영향받은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술하고 있다.

> "정윤광 선배가 한 칸 옆에 살았고. 김영곤 선배도 … 그 양반들이 들여온 책들 한 권씩 받아서 『경제학원론』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하고 … 두 양반이 노동운동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거야 … . 그 당시엔 … 민주화운동인데, '노동운동을 해야 사회가 바뀌진다.' 그니까 이게 전 단계도 안 띠고 바로 결론을 들은 거야 …. 그래 감옥살고 나서 난 당연히

… '굉장히 근본적인 운동을 해야 된다. 박정희 반대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했고."(이학영 구술)

이처럼 감옥은 구속된 이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조직운동의 공간이자, 사회과학을 학습할 수 있는 배움터였다. 더욱이 구속자들이 석방 이후 운동의 인맥을 형성하는 데도 영향을 주었다. 1975년 2월 석방된 그는 노동운동을 하기 위해 민청학련 관련자들의 모임에 참여하였다. 그는 반독재운동 차원을 넘어서 사회주의 이념을 운동의 방향으로 인식하면서 노동현장에 참여하였다(이학영 구술). 강원대 72학번인 이동섭도 학생운동을 하지 않던 대학생이었다. 그러나 1975년 김상진 분신사건들 듣고 유신정권에 대한 분노로 주위 친구들과 시위를 계획했다가 실패하면서 강제징집당했다. 군대생활 이후 그는 72학번 강제징집자 모임에 참여하여 학습을 하면서 삶의 방향을 고민했다. 그는 1978년 동일방직 오물투척사건으로 알게 된 노동자들의 현실에 충격을 받았고 모임에서 사회과학과 노동문제에 대한 학습으로 사회문제를 인식했다. 특히 그는 "사회혁명을 위해서는 노동운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에 영향을 받았다. 이런 과정에서 그는 막연하게 사회를 바꾸기 위해 노동현장에 들어갈 결심을 했다(이동섭 구술).

셋째, 당시 학생운동가들은 학생운동이 반독재투쟁 과정에서 계속되는 패배를 경험하고 장기적인 반독재운동의 주체로서 노동자를 인식하면서 노동운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또는 사회민주화, 불균등한 분배문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와 함께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노동현장에 참여하기도 했다. 일례로 여성으로 처음 노동현장에 참여한 이화여대 71학번인 오성숙은 새얼서클에서 사회과학 학습을 하였고, "대학 2학년 때 공장활동에서 만난 노동자들의 삶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막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하게 노동운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다. 그녀는 "노동운동이 사회민주화와 불평등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오성숙 구술). 고려대 73학번인 최봉영 역시 군대생활 이후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도천수 등 학교 친구들과 진로를 모색하면서 노동현장에 갈 결심을 했다. 그가 노동현장투신을 결정한 것은 학생운동으로 유신정권을 무너뜨리기 어렵다는 것과 장기적으로 운동을 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최봉영은 다음과 같이 기억하고 있다.

> "유신이라는 아주 강대한 넘어야 할 산이기 때문에, 그게 시급히 깨부셔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는 거야 … 군대 갔다 와서 '이건 뭐 학생들이 시위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은 했었지. '이건 보다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 그때 아마 생각이 질적으로 달라졌다고." (최봉영 구술)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1970년대 학생운동가들의 노동현장에 투신했던 이유는 민주주의적 요소, 민중주의적 요소, 사회주의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있었다. 이 가운데 사회주의에 대한 관심은 이념서클의 학습과정에서 갖게 된 것으로 김승호, 정윤광, 황인범, 고려대 한맥회 출신들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들은 다른 대학의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는데, 전남대의 이학영과 강원대의 이동섭 등이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고통받는 노동자와 함께 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학생운동의 한계와 반독재운동의 주체로 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해, 그리고 빈부격차와 사회민주화를 위해서 투신했다.

이들의 의식에서 공통된 것은 노동현장 활동을 장기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노동운동이 발전하지 못한 속에서

노동현장 활동이 절박하게 인식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노동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목적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정부의 감시를 피해 장기적으로 노동현장에 노동자로 뿌리내리는 것을 1차적인 목적으로 삼았다. 그 때문에 이들은 평생을 노동자로 살기 위해 기술습득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2) 기술습득을 통한 노동현장 투신

1970년대는 직접적으로 노동현장에 투신하는 방식 이외에도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운동에 참여하는 여러 방식이 있었다. 그러나 학생운동가들은 대체로 노동현장 투신이 근본적인 운동이라는 공통된 인식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노동운동에 참여하여 개별적인 관계 또는 공개적인 활동을 통해 교류를 하기도 했다.

노동현장으로 투신한 경우를 살펴보면, 이들은 대부분 남성들이었고 노동현장 투신이 곧 생활인이 되는 것이기에 장기적으로 노동운동을

〈표 2〉 1970년대 노동현장투신자와 지원단체 참여자들

참여 분야	참여자(소속 대학)
노동현장	김정강(서울대), 신금호(서울대), 김문수(서울대), 김영곤(고려대), 정윤광(서울대), 황인범(서울대), 김영준(연세대), 오성숙(이화여대), 이학영(전남대), 양재덕(고려대), 송운학(서울대), 최규엽-도천수-최봉영(고려대), 이동섭(강원대), 임규영(경북대)
한국노총계	천영세(고려대), 김금수(서울대), 이원보(고려대), 조춘구(고려대), 김승호(서울대), 이목희(서울대), 오승룡(연세대)
지원단체	최영희(이화여대), 신인령(이화여대), 김세균(서울대), 신철영(서울대)
기타	장명국(서울대), 이태복(국민대)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하려면 기술습득이 필수라고 생각했다.

이들의 노동현장 투신방식에서 나타난 특징은 첫째, 대부분 집안문제, 경제문제 등 개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느라 일정한 시간을 지체한 뒤 현장투신을 준비했다. 둘째, 이들은 보위문제 때문에 노동현장 투신에 대해 주위에도 알리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준비했는데, 초기에는 기술습득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여했다. 이들이 습득한 기술은 보일러공, 선반, 전기기술 등이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몇 개의 기능자격증을 취득했다. 셋째, 기술을 습득한 뒤 취업은 사업장을 조사해서 전략적으로 사업장에 들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주위에 취업하기 좋은 곳을 찾는 경우가 많았다. 그 때문에 이들은 여러 사업장을 전전하기도 했으며, 대부분 현장 투신 시점이 1970년대 말 또는 1980년대 초로 늦어졌다. 넷째, 이들은 구속, 수배 등의 경력으로 늘 수사당국의 주요 감시대상이었기 때문에 활동이 자유롭지 않았다. 그 때문에 공장에 취업한 뒤에는 관련자들과 극히 드물게 개인적인 관계만 유지하면서 정보교류를 할 뿐이었다. 이처럼 1970년대 노동현장에 투신한 이들은 개인문제, 기술습득에 많은 시간을 투여해서 취업 후에는 평생 노동자로 생활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의 노동현장 투신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김승호는 노동현장 투신을 결심한 뒤, “장기적으로 현장에 가려면 단순노동으로는 현장 안에서 영향력도 별로 없고, 기술이 있는 것이 좋다. … 전기는 구석구석에 다 있으니까 사람들을 조직하고 하는 데는 전기를 기술을 가지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듣고, 1976년경 전기기술을 배웠다. 그 뒤 성남 주민교회에 참여해 청년활동을 하면서 노동자들과의 관계를 가지려 했으나, 김상진 분신사건으로 수배당하던 김근태 등과의 관계 때문에 정보당국에 거주위치가 확인되었다. 그는 장소를 옮겨 구로공단에서 공장생활을 하던 중 다시 정보당국에게 발각되자 공장을

나왔다가 1978년 섬유노조에 들어갔다(김승호 구술).

또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됐던 서울대 황인범은 1975년 출감 이후 집안 경제사정으로 직장을 다니면서 배관기술과 보일러기사 자격증을 학원에서 습득했다. 1979년 3월 병점의 남일전지에 입사하였다. 이어 1980년 1월에는 성남의 자전거 생산업체인 대영상사로 옮겨 기관사로 활동을 하다가 신분이 노출되어 퇴사했다. 그 뒤 그는 직업소개소를 통해 대동화학에 보일러 기관사들을 관리하는 위치로 입사했다. 이 상황을 황인범은 다음과 같이 기억한다.

> "77년 11월부터 79년 2월에 … 배관공 자격증을 따가지고, 3월에 들어간 게 수원 병점에 있는 남일전지인데 … . 그 다음에 보일러 자격증을 따서 80년 1월에 성남의 대영상사로 옮기죠. … 1천 명이 넘는 굉장히 큰 회사거든요. … 기관실이 생산라인에 스팀을 공급해주거나 난방을 공급해주거나. … 어느 부서든, 내가 누구를 만나려면 가서 의도적으로 친한 척 할 수 있고 … 그런 점은 유리해요 그 대신 하나의 팀으로서의 조직력이라 그럴까 이것은 아무래도 취약하죠."(황인범 구술)

위의 예처럼 학생운동가들은 기술습득에 2~3년을 소요하고 활동에 적합한 곳을 찾느라고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니는 과정에서 정보당국의 추적 등으로 이탈한 경우도 있었다.

남은 이들이 노동현장에 정착해 활동을 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였다. 특히 민청학련 관련자나 1972년 강제징집자 등이 노동현장에 들어간 시기는 위의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전반기였기 때문에 이들의 활동 역시 1970년대 민주노조운동과 직접 결합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더욱이 1970년대 민주노조운동은 여성노동자 중심의 섬유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업과 전자업종에서 일어났고, 남성노동자들은 1974년 현대조선소 노동자들의 자생적인 투쟁 이외에는 노동운동의 주체로 등장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노동현장에 들어간 학생운동가들은 오성숙을 제외하고는 모두 남성들이었다. 여성사업장에 취업한 남성들도 주로 보일러 기사로서 생산현장의 노동자들을 조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들 중에 1970년대 유일하게 현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펼친 이는 한일도루코의 김문수였다. 그가 1975년 영등포에 위치한 한일도루코에 보일러 기사로 입사해 일하던 중 1978년에 반장급들이 주도하여 유령노조를 재건시키는 일이 일어났다. 김문수도 노조에 참여해 교육선전부장을 맡았다. 그러나 회사 측이 노조간부가 된 관리자들을 매수하고 회유하여 노조존립이 위태로워지자, 김문수가 직무대행을 맡았다(박육남 2001, 295-296). 김문수는 노조활동으로 "임금인상활동하고, 고충 처리, 봉급 문제, 산업재해문제, 주로 그런 거 해결했고 … 그 다음에 노동자 교육, 주로 노동법 교육"을 하면서 노동자들이 노조의 중심이 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변화시켰다(김문수 구술).

이처럼 1970년대 노동현장 투신자들은 대부분 민주노조운동과 결합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들은 노동운동의 발전이 미약한 상황에서 노동현장 투신의 필요성을 실천적으로 제기하였다.

2) 한국노총과 지원 단체 활동

(1) 한국노총·산별노조 참여와 활동의 제약

1970년대 학생운동가들 중에 일부는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노총과 산별노조에 실무자로 참여했다. 한국노총을 어용이라고 인식하

고 있던 학생운동가들은 한국노총 계에 참여하는 것을 둘러싸고 논쟁이 있었다. 앞서 1960년대 중반 김정강 그룹에서 노동운동 참여방식을 둘러싸고 노동현장진입이냐 노동조합과 단체참여냐를 둘러싼 논의가 있었다(김정강 구술). 1970년대에는 한국노총 진입에 대해 "어용 집단에 들어가는 것은 의미 없는 일" 또는 "공화당 가는 것보다 더 나쁜 짓"이라는 부정적이면서도 비판적인 입장과 "대중조직이니 대중과 접촉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입장 등으로 나뉘어 있었다(김금수 구술). 특히 민청학련 관련자들은 한국노총과 단체 참여에 대해 소극적인 방식 또는 비정통적 방식으로 인식했다(정윤광 구술).

한국노총이나 산별노조에 지식인이 참여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였다. 한국노총이나 산별노조는 1960년대 후반기에 대학교수들을 자문위원이나 프로젝트에 참여시켰다. 그 뒤 전태일 분신사건으로 형성된 한국노총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하면서 자구책으로 지식인을 실무자로 받아들여 변화를 시도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한국노총에 전문직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그 목적이 노총을 개혁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한국노총을 개혁하기는 극히 어려운 일이고 거기에도 조직된 노동자들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통로"라는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처음 한국노총에 들어간 이는 1972년 서울대 법대 이영희였다. 그는 전태일 분신사건의 충격으로 대학원을 졸업한 뒤에 "노동자들의 친구인 대학생이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또 1976년 10월 '정책노총'의 슬로건을 내걸고 정동호가 한국노총 위원장에 당선이 되면서, 한국노총에서 정책 연구위원을 모집하자 조춘구(고려대)와 김금수(서울대)가 기획연구실의 연구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서나 연설문 쓰기, 노총의 활동방향에 대한 건의서 작성 등의 실무를 담당했다(이원보 구술).

한편 산별노조는 필요에 따라 전문 직원을 채용했다. 화학노조에는 천영세(고려대)와 오승용(연세대) 등이 참여했다. 당시 화학노조 위원장은 정책을 만들어 정부나 회사 측을 압박하는 힘으로 활용하려 했다. 이를 위해 그는 지식인들의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이들을 고용했다(신금호 구술). 또 학생운동가 출신으로 섬유노조 실무자로 들어간 이는 이원보(1976), 김승호(1977), 이목희(1978)였다. 이들은 기획실이나 교육선전부에서 일을 했는데, 주로 『섬유노보』라는 신문을 만드는 일을 했다. 한국노총과 산별노조의 의사결정은 노조 임원들이 하였고, 사업계획은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하여 중앙집행위원회나 상무집행위원회에서 결의하는 구조였다(김승호 구술). 그렇기 때문에 결정권한이 없는 전문직원들이 노총을 개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고, 이들의 역할은 결정된 사업에 대한 실무적인 일을 처리하는 것이었다. 더욱이 이들은 정보당국의 감시체제 속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활동이 극히 제한되었다. 그나마 이들은 드물게 민주노조에 대한 개별적인 교육지원이나 투쟁지원을 할 수 있었다. 산별노조에 참여한 이영희, 천영세 등이 크리스천 아카데미에 교육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일부 지원활동을 했다.[17]

(2) 크리스천 아카데미의 노동자 정치교육

1970년대 학생운동 출신자들의 또 다른 일부는 종교단체나 교육단체에 들어가 노동운동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였다. 김근태나 손학규 등이 영등포 산업선교회의 소모임을 지원하는 활동을 벌이기도 했지만, 종교기관의 실무자로서 들어가 노동운동을 처음 시작한 이는 이화여대 69학

17) 섬유노조의 김승호, 이목희는 1980년 '서울의 봄' 시기에 해직되었고, 섬유노조의 이원보, 한국노총의 김금수 등은 1985년 구로동맹파업 등을 둘러싸고 이견을 제기하다가 해고당했다(각인의 구술 참조).

번인 최영희였다. 그녀는 졸업을 몇 개월을 앞두고 '새얼모임'에서 현장 체험과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관계를 맺은 인천 도시산업선교회에 실무자로 참여하여 노동운동을 시작했다. 당시 인천 도시산업선교회는 조화순 목사를 중심으로 여성노동자들을 교육하며 노조활동을 지원하였다. 특히 이곳에서는 동일방직 노조민주화를 이룬 여성노동자들이 소모임을 하며 교육을 받기도 했다(최영희 홈페이지). 그 뒤에 영등포 도시산업선교회에 실무자로 들어간 이는 서울대 신철영이었다. 그는 선배인 서경석의 소개로 1978년부터 영등포 산업선교회의 간사로 활동했다. 당시 교회에서는 해태제과 노동자들의 '8시간 노동제쟁취투쟁'을 지원하는 등 유신체제 말기에 노동자 투쟁을 지원했다(신철영 2008, 109-120).

최영희, 신철영 등과 같이 교회를 매개로 노동운동을 벌인 경우는 개별적인 활동성과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교회는 목사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었고 노동운동에 대한 개입과 지원의 목적 역시 교회의 이념 안에서 이루어졌다(김세균 구술). 그 때문에 실무자들이 독자적인 활동을 펼치기는 어려웠다. 다만 1970년대 인천과 영등포의 도시산업선교회가 동일방직, 원풍모방, 반도상사 등의 민주노조들을 활발하게 지원하는 활동을 벌인 점을 미뤄봤을 때, 이들 실무자들이 노동자들의 교육과 민주노조지원활동의 중심 역할을 했을 것이라 판단된다.

교회기구와 달리 교육기관인 크리스천 아카데미[18]에서 실무자들은 독자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 아카데미 교육 중에서 노동교육을 담당한 이는 신인령과 김세균이었다. 신인령이 먼저 활동을 시작하였고, 김세균은 교육과정에 참여한 뒤에 1977년부터 실무자로 활동하였다. 당시 민주노조운동은 사업장 중심의 노동조건개선과 권리확보를 위한 활동

18) 재단법인 크리스천 아카데미에 대해서는 정연순(1998, 19-20) 참조.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에 집중하면서 독자적 이념형성이 지체됐다. 이런 민주노조운동을 변화시키려는 움직임이 크리스천 아카데미의 노동교육활동이었다.

아카데미의 목표는 한국사회를 이끌 이념형성과 이를 맡을 중간집단의 양성에 있었다. 중간집단 교육은 1973년부터 준비되어 교육대상은 교회사회, 청년사회, 여성사회, 산업사회, 농촌사회의 5개 분야로 확정했다. 1974년부터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크리스천 아카데미의 중간집단 교육을 운영한 것은 각 사회별 교육위원회였다(정연순 1998, 36). 산업사회 교육은 산업사회교육위원회가 담당하였다. 초기 산업사회 교육위원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노동법과 노동문제 전문가인 대학교수, 한국노총과 산별노조의 정책 실무자들이었다. 특히 젊은 교육위원들은 대학에서 1970년 전태일의 죽음에 충격 받아 노동문제에 관심을 가진 지식인들이었다. 이들은 노동문제의 심각성과 이 해결의 중요성을 훨씬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실무자들 역시 사회문제에 대한 구조적 해결을 모색하던 이들이었다(김세균 구술).

농촌사회간사는 이우재, 장상환, 황한식, 여성사회간사는 한명숙, 산업사회간사는 신인령, 김세균으로, 이들은 1978년부터 '사회주의학습 6인 클럽'을 비공개로 구성하여 맑스주의 등을 학습하면서 교육을 매개로 한 민중운동의 방향을 모색했다. 아카데미사건 공소장을 통해 확인되는 이들의 학습교재는 평양방송-맑스·레닌주의 방송대학강좌, 통혁당 목소리 방송, 모스크바 한국어 방송 등을 청취, 북한에서 발행한 『현대사상연구』, 『조선여성독본』, 맑스 저작인 『공산당 선언』, 『자본론』(영문판), 『국가와 혁명』, 『가족, 사유재산 및 국가의 기원』, 『반듀링론』 등이었다(크리스천 아카데미 사건 공소장 1979형 16567호). 이는 사실여부와 무관하게 당시 실무자들이 한국사회의 모순 해결을 위해 사회주의 이론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때문에 이들이 주도한

아카데미 노동교육은 민주노조 간부들에게 사회구조 속에서 노동문제를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정치교육이 중심이었다.

이들은 노조간부들이 노동운동가로 성장하도록 뒷받침이 되는 교육을 실시하려 하였다. 교육 내용은 주로 사회과학적 인식, 즉 자본주의 발생과 발달과정의 역사, 자본주의 체제와 노동문제 발생의 필연성,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자 계급투쟁의 역사 등이었다(정연순 1998, 33).

당시 아카데미 교육에 참여한 노동자상황은 중간집단 교육 중에 총 19회에 걸쳐 진행된 1차 과정에는 602명이 참여했고, 총 5회 교육을 진행한 2차 과정에는 103명이 참석하는 등 당시 교육으로는 대단히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노조간부 양성교육은 노조간부들이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노조운동을 사회운동 속에서 인식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특히 4박 5일에 걸친 숙박교육의 형식은 정해진 교육프로그램 이외에도 교육생들의 관계를 돈독하게 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사업장의 틀을 넘어서는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일조했다.

실무자들은 노조간부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려 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들을 통해 전체 민주노조운동의 조직적 중심을 형성하려 했다. 이를 위해 정규교육 이외에도 실무자들은 비공식적인 후속교육활동을 벌이면서 노동자들과의 유대를 강화했다. 원래 아카데미는 교육 이수자의 교육효과를 점검하고 활동을 격려하려는 목적으로 후속교육을 공식적으로 권장했으나 실무자들의 활동은 이 목적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다.

특히 김세균은 활동 목표를 어용인 한국노총을 대체하는 새로운 민주노조의 전국조직건설을 모색하면서, 장기적으로 노동자정당을 만드는 것에 두었다. 후속모임에 참여했던 노동자들도 1977년 청계피복노조의 노동교실강제해산, 1978년 동일방직노조 탄압사건 같은 정권의 탄압을 경험하였고, 거기에 한국 사회구조에 대한 학습을 바탕으로 미약하나마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남상헌 구술). 이에 대해 김세균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70년대 후반에, 민주노동운동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연결이 되고. 또 거기에 연결되는 조합원들도 있어서 세력을 좀 모으고 있었지요. … 그래 1차적으로는 '민주노조운동을 성장시켜서 한국노조운동 전체를 개혁하는 … 새로운 민주노동운동의 흐름을 만들어 낸다'는 게 목표고. … 그 다음에 그에 기반해서 '언젠가는 우리도 제대로 된 노동당 하나 만들자' … 약속도 하고."(김세균 구술)

1975년 5월 13일 50여 명의 이수자가 후속모임으로 노동사례연구회를 발족하였다. 연구회의 핵심 사업은 매월 1회 '목요토론회'를 진행하는 것이었다. 목요토론회는 회원들의 주제발표와 전문가의 주제 강의가 번갈아 진행되는 형식이었다(이임하 2005, 567-568). 노조의 사례발표는 주로 회사 측의 탄압과 제도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노조를 설립한 사례, 임금인상과 단체협약투쟁을 성공시킨 사례들이다. 이런 사례발표는 노조활동의 모범과 전형으로 제시되었으며, 동일방직과 같은 탄압사례에서는 연대지원의 방안을 논의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사례 발표양식이 점차 발전하면서 회원들이 공동조사팀을 만들어 노동계의 문제점을 조사하여 보고하기도 했다(정연순 1998, 41-43). 그 밖에 연구회는 노동계의 정보교환, 회원들 간의 친목도모 등을 통해 참여한 노동자들의 연대의식을 형성하는 매개가 되기도 했다.

또 실무자들은 교육을 매개로 노동자들과의 관계를 넓혀 나갔다. 외부적으로는 후속교육을 위한 지방 및 현장순회라는 이름으로 현장교육을 비공개로 진행하였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아카데미 교육에 참여한 민

주노조 간부들이 자신들이 받은 교육을 소속 노조에서 할 수 있도록 의뢰한 것이었다. 비공개 교육에는 청계피복, 원풍모방, 고려피혁, 반도상사, YH무역 등의 노조간부, 핵심 조합원들이 참여했다. 또 민주노조 간의 공동교육 형태로 진행했다(김세균 구술). 이런 외부교육은 실무자들이 노동현장과 노동자들의 상황을 파악하는 주요 통로가 되기도 했다. 이런 시도는 1979년 크리스천 아카데미 사건으로 실무자들이 구속되면서 중단되었다.

마지막으로 아카데미에 참여한 실무자들은 지식인과 노동자의 연대를 시도했다. 이는 비록 구상 단계였지만 노동운동의 독자세력을 형성하려던 시도와 맞물려 있었다. 또한 김세균, 신금호, 이태복 등 학생운동가들이 노조간부들과 같이 정규교육에 참여시켜서 노동자들의 분위기와 노동현장의 상황, 노동운동의 기초적 이론을 습득하게 하였다(김세균 구술). 이는 학생운동가들의 노동현장 진출을 넓히기 위한 것이자, 학생운동가들이 개별적으로 노동현장에 진입하던 방식을 변화시켜 보다 의식적으로 노동현장 투신자들을 양성하려 한 것이었다.

이러한 활동들은 1979년 크리스천 아카데미 사건으로 중단되었다. 그러나 아카데미의 활동가들은 노동자들의 정치의식화와 민주노조의 독자적인 전국조직에 대한 모색, 학생운동가들의 노동현장 참여를 위한 의식적 노력 등을 전개하면서 종교계의 영향하에 있던 민주노조운동을 변화시켜 노동운동의 정치적 성격을 강화하려 했다.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4. 결론

일제 강점기에 시작된 학생·지식인의 노동운동 참여와 혁명적 노동조합 운동에서 시작된 노동현장 투신은 한국전쟁으로 단절되었다. 그 뒤 1960년대 말 김정강을 비롯한 극소수의 학생운동가들이 노동현장 투신을 시도했고, 일부의 학생운동가들은 정치문제를 중심의 학생운동의 한계에 부딪혀 사회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이념서클 형성을 시도했다. 한편 일부 지식인들도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고려대노동문제연구소 등을 세워 노동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일어난 전태일 분신사건은 학생운동이 노동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노동운동에 직접 참여하도록 촉구하는 또 다른 계기가 되었다. 1970년대 학생운동은 이념서클 활동을 넓혀나가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문제의 선전을 통해 노동운동을 간접적이나마 지원하기 시작했다. 또 학생운동가들은 1970년대 노동현장 투신, 종교단체나 교육기관 참여, 한국노총과 산별노조 등에 직접 참여하기 시작했다

1970년대 학생운동가들의 노동현장 투신은 사회주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거나, 반독재운동을 위해, 무엇보다도 노동자와 함께 하는 삶을 선택하는 민중주의적 의식이 혼재되어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1970년대 후반기에 노동현장에 진출하였고 장기적 관점을 갖고 개인적으로 기술을 습득한 뒤 취업을 했기 때문에 당시 민주노조운동과 관계를 맺지 못했다.

한국노총이나 종교단체 실무자로 노동운동을 벌인 이들은 개별적 차원에서 민주노조지원활동을 벌였다. 이들 중 일부는 1980년 '서울의 봄' 시기에 한국노총을 정리했고, 다른 일부는 한국노총 간부들과 갈등을 겪다가 1985년에 정리하였다.

이 시기의 민주노조나 노동자들과 직접 관계를 맺으면서 영향을 준

것은 크리스천 아카데미에서의 활동이었다. 노동교육을 매개로 활동가들은 노조간부들의 정치의식화와 민주노조운동의 중심 형성 목표로 활동하면서 노동운동의 새로운 주체형성을 위한 의식적 실천의 첫 싹을 틔웠다. 또 1970년대 후반에 등장한 노동야학운동은 노동자들의 사회의식 형성과 학생운동가들의 노동현장 투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와 같이 1970년대 학생운동은 노동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노동자 지원활동을 벌이기 시작했으며, 이는 1980년대 학생운동의 노동문제의 정치화를 시도한 공단주위 유인물 배포, 가두시위 등의 노동자들과 연대하는 노학연대 활동으로 발전되었다. 또 1970년대 전반기에 일부에서 일어나 학생운동의 역할을 둘러싼 논쟁은 1970년대 후반기에 현장론과 정치투쟁론으로 대립하였고, 1980년대 들어서는 무림-학림논쟁, 야학비판논쟁 등으로 이어졌다.

한편 1970년대 학생운동가들의 개별적이고 '장기론'적인 노동현장 투신은 1980년대 들어 '준비론', '대기론', '민중주의'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1980년대 학생운동가들의 집단적 노동현장 투신의 바탕이 되었다. 1980년대 학생운동가들이 집단적으로 노동현장 투신을 한 계기에 대해 대체로 1980년 광주민중항쟁의 경험을 통해 사회변혁 의식의 확산과 그 주체로서의 민중·노동자들에게 주목했기 때문이라고 제기됐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식의 확산이 곧바로 노동현장 투신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1980년대 이전 시대에 노동현장 투신의 움직임이 지속되어 오지 않았다면, 1980년대 대대적인 노동현장 투신이 가능했을까. 1980년대 학생운동은 광주민중항쟁을 계기로 운동의 목표가 사회변혁에 있다는 것을 현실에서 확인하였고 노동운동의 의미를 재인식하였다. 그에 따라 이들은 1970년대 노동운동을 새롭게 평가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1960년대 말부터 시도되면서 1970년대 말에 확산되기 시작한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학생운동가들의 노동현장 투신에 대해 착목하면서 노동현장 투신을 집단적으로 감행했다고 본다. 즉, 1980년대 학생운동가들은 노동자계급이 변혁운동의 중심이라고 인식하면서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를 지향하면서 노동현장에 투신하였고, 그 때문에 민중주의적인 1970년대 학생운동가들의 노동현장 투신방식에 대해 비판하며 단절을 시도하였다.

예를 들어 1980년 초에 이미 이태복에 의해 비판이 제기되고 단절이 시도됐다. 그는 1970년대 노동현장에 참여한 학생운동 출신들에 대해 '장기론·준비론', '소그룹주의'라고 비판하였고(이태복 구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노동운동', 즉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노동운동이 필요하다면서 전국민주노동자연맹의 결성(1980/05/03)을 주도했다. 이어 1983년 쓰인 팸플릿인 "노동운동의 방향정립을 위하여"에서는 1980년대 이전 노동현장 투신을 한 학생운동가들에 대해 "학생운동 내에서 현장론을 실천한 효시"로 그 위치를 평가하면서도, "장기론-준비론적 시각으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고 심지어 "과학적 이론의 부재 속에 신비화된 민중주의나, 전술을 갖지 못한 채 민중 속에서 그들과 같이 사는 것에 만족하는 도덕주의, 현장생활주의"였다고 비판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생운동가들이 과학적 이론을 갖추고 노동운동의 정치투쟁화를 위한 대중활동을 준비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처럼 1980년대 학생운동가들의 노동현장 투신은 1970년대 학생운동가들의 노동현장 투신을 바탕으로 광주민중항쟁을 계기로 보다 집단화되었고, 사회변혁을 위한 노동자계급의 조직화라는 목표를 보다 분명히 하였다.

다른 한편에서는 1980년대 노동운동, 특히 정치조직운동의 중심적 인물들은 광주민중항쟁의 세례를 받은 세대라기보다는 대부분 1970년대 노동운동에 참여했던 이들이었다. 실제로 김승호(68학번)는 경기수원지

역노동자연합, 황인범(69학번)은 서울노동조합운동연합, 김문수(70학번)는 서울노동운동연합, 최규엽(73학번)은 서울남부지역노동자연합 등의 정치조직 결성을 주도했다. 또 1980년대 학생운동 세력과는 구별되는 1970년대 후반기 77학번인 노회찬은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 안재환은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 신정길은 일동그룹, 전성은 안산민주노동자연맹, 김진국은 인천노동운동연합과 삼민동맹조직을 주도적으로 하였고 그 지도부로 활동하였다. 거기에 1970년대 노동운동 및 노동현장에 투신했던 이들 중에 정윤광(68학번,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 이동섭(73학번, 전국민주택시노조 간부), 최봉근(74학번, 동아건설노조 사무장) 등은 노동조합운동의 지도부로, 김금수(57학번, 노동교육협회), 이목희(70학번, 한국노동문제연구소) 등은 노동운동단체의 지도부로 활동을 하였다. 이런 점에서 1970년대 학생운동가들의 노동운동 참여와 노동현장 투신은 1980년대 노동운동의 개별적인 주체 형성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1. 자료

1) 수기·기록문

김문수. 1986. “어느 실천적 지식인의 자기반성.”『현장』6. 돌베개.
박육남. 2011.『나, 여성노동자』2. 그린비.
신철영. 2008. “도시산업선교회와 나.”『내일을 여는 역사』34호. 선인.
이태복. 1994. “노동운동 투신동기와 민노련·민학련사건.”『역사비평』27호.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역사비평사.
황광우. 2007. 『젊음이여, 오래 거기 남아 있거라』. 창작과비평사.

2) 재판기록물

크리스천 아카데미 사건 공소장 1979형 16567호.

3) 기타

김석준 홈페이지(http://www.kimsukjoon.com).
최영희 홈페이지(http://www.choi1388.or.kr/choi/history.asp).

2. 주요 논저

1) 논문

김낙중. 1985. “지식인과 노동운동.” 『한국자본주의와 노동문제』. 돌베개.
김 원. 2002. “여공담론의 남성주의 비판.” 서강대 정치학 박사학위 논문.
문용식. 1994. “1960~80년대의 청년학생운동.” 『한국사』 20권. 한길사.
박성현. 1990. “무학논쟁.” 『80년대 한국사회 대논쟁집』. 중앙일보사.
유경순. 2011. “청계피복노동자와 학생·지식인의 연대활동 및 상호작용.” 『고려사학회』 44호.
이임하. 2005. “1970년대 크리스챤 아카데미 사건 연구.” 『1970년대 민중운동연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해찬. 1984. “유신체제와 학생운동.” 『유신체제와 민주화운동』. 삼민사.
정연순. 1998. “1970년대 노동교육의 사례연구.” 서울대 교육학 석사논문.
조희연. 1988. “80년대 학생운동과 학생운동의 전개.” 『사회비평』 창간호. 나남.
_____. 1995. “민청세대, 긴조세대의 형성과 정치개혁 전망.” 『역사비평』

30호.

2) 단행본

경찰청. 1992.『해방이후 좌익운동권 변천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5.『1970년대 민중운동연구』.
_____. 2006.『한국민주화운동사 연표』.
_____. 2011.『학생운동사구술자료집』1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2006.『한국민주화운동사 연표』.
신동호. 2007.『70년대 캠퍼스』. 도요새.
이재오. 1987.『해방 후 한국학생운동사』. 형성사.
조영래. 1983.『전태일 평전』. 돌베개.
조희연 편. 1990.『한국 사회운동사』. 죽산.
편집부. 1989.『학생운동논쟁사』. 일송정.
편집부 편. 1988.『통혁당』. 대동.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소. 1983.『1970년대 민주화운동』5권.
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연구반. 1991.『한국현대사』3권. 풀빛.
한승헌 외. 1984.『유신체제와 민주화운동』. 춘추사.
한완상·허병섭. 1985.『한국민중교육론』. 학민사.

투고: 2013.9.25 심사: 2013.10.10 확정: 2013.11.1